

매 수	참고자료	사 진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
2	X	0	과장 : 이진석 (02-3677-2470) 팀장 : 김지현 (02-3677-2064) 담당 : 신규정 (02-3677-2066)

과천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성황리에 마무리

- 에드워드 엘가 첼로 협주곡 3·4악장(협연 : 이정란)
호아킨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협연 : 장대건)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7번 4악장 등 선보여
- 과천문화재단 ‘11시 콘서트’ 4월 24일 첫 모습 선보일 예정

과천시 시립교향악단(이하 과천시향)은 8일, 예술의 전당에서 ‘11시 콘서트’를 열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11시 콘서트’는 2004년 시작되었고, 한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11시 콘서트’에서는 우리 음악계를 대표하는 지휘자와 교향악단을 연결하고, 촉망받는 연주자와 협연 무대를 선보여 왔다. 또한 수준 높은 연주와 함께 작품과 작곡가에 대한 친절한 설명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11시 콘서트’의 주인공은 서진 지휘의 과천시향 이었다. 감각적인 서정성이 돋보이는 첼리스트 이정란과 한국 기타리스트 최초로 스페인의 마리아 카날스 국제콩쿠르에 입상한 장대건이 출연해 관객들에게 더욱 풍부한 음색을 선사했다.

이날 콘서트는 스페인 출신의 작곡가 히메네스의 오페라 ‘루이 알론

소의 결혼' 중 '간주곡'으로 콘서트의 문을 열었다. 이어 에드워드 엘가의 유일한, 첼로 협주곡 3·4악장(협연 : 이정란)과 호아킨 로드리고의 '어느 귀인을 위한 환상곡'(협연 : 장대건)이 흘러나오고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제7번 4악장을 끝으로 공연은 막을 내렸다.

과천시향의 '11시 콘서트'는 과천에서도 다시 한 번 열릴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를 벤치마칭한 과천문화재단의 '11시 콘서트'가 오는 24일 11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첫 선을 보일 계획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일상에 과천시향의 클래식 공연이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향은 지난 4월 2일에도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교향악축제'에 참가해 과천시향의 뛰어난 연주실력을 드러냈고 깊이 있는 해석으로 음악을 전달하는 서진 지휘자로 인해 관중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 바 있다.